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25호 2021년 03월 02일(화)/계간

발행인 · 김두년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팀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지면안내

입학축사

02 안성준 재단 이사장
02 김두년 총장
03 이차영 괴산군수
03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03 최두환 총학생회장

Campus News

04 '2021년 언텍트 시무식' 개최!
04 종교문화학과 김철수 교수, 부총장 임명
04 최상범 교수, 한국골프학회 '2020년 우수학술상' 수상!
04 작업치료학과, 국가고시 높은 합격률 쾌거!
04 신소재공학과, 졸업생 8명 신성장 대기업 취업 성과!
05 교양학부 황연화 교수, '미국 대통령 특별상 금상' 수상
05 아동보육상담학과 정효정 교수, '2020 보육유공자 대통령 표창' 수상
05 학생상담센터, 충북 대학생 정신건강복지사업 우수 프로그램 수상
05 우리 대학 축구부 진필립 선수, '부산 아이파크' 입단
06 우리 대학 박물관, 2020 꿈을 그리는 CAMPUS 展 개최
06 '충북권역 공동활용 소형 스튜디오 구축 사업' 선정
06 우리 대학 의료공학과 출신 성명수 박사, 중국 남통(南通)대학 교수 임용
06 제12기 학생홍보 대사 '가람' 임명장 수여식

Social News

07 육거리종합시장 상인회와 교류 협약 체결
07 새해맞이 이웃돕기로 따뜻한 온기 전해
07 한국소비자협회와 상호협력 MOU 체결
07 '충주자유시장상인회' 와 맞손

Covid 19 News

08 2021년 전기 학위수여식 온오프라인 개최!
08 학생소통 이벤트 '달달드림~ 총장님이 쏜다!' 개최
08 국제교류원, 외국인 유학생 입국대비 방역체계 구축
08 괴산사랑운동 '꽃같은 花요일' 동참

JWU in 人

09 중원인(中源人)이여, 시혜불념(施惠不念)하고 수은불망(受恩不忘)하시기를
10 11 우리 교수님 자랑 좀 하고가실게요~

Life in JWU

12 슬기로운 중원대학교 생활 부서소개편
13 졸업생을 만나다
14 총학생회 DREAM! 우리의 꿈도 이루어 DREAM!
15 나만따라와! 중원대학교를 안내할게 – 숨은스팟 및 편의시설 소개 1탄

Our Story

16 장학금 어디까지 알고있니?
17 내가 치매라구~? – 디지털 치매 진단법

Culture

18 19 언론장학기자단이 추천하는 인생 책! – JR 권장 도서

발전기금

2021 辛丑年 JUNGWON UNIVERSITY
START SCHOOL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이사장
안성준

젊은 도전자로서 꿈과 미래를 더 열린 자세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학교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코끝에 느껴지고, 교정에 푸른 빛이 감도는 희망의 시기에 우리 중원대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섬에 있어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가 사그라지지 않아 기대와 불안감이 함께 하는 마음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재단과 학교, 그리고 그 구성원은 여러분의 불안감은 모두 지우고, 오롯이 그 기대를 성과로 바꾸는 역할을 제공하고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학 사회라는 공간은 자유의 공기로 채워집니다. 이는 다른 사회보다 더 많은 선택지(more selection), 선택에 따른 활발한 수행과정(active process), 그리고 그 결실(fruitful success)을 누릴 기회의 전당이라는 의미입니다. 선택의 실패와 과정의 실패가 용인되고, 책임을 추궁하기 보다 또 다른 기회와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품은 포부와 꿈을 구체화하고, 세련되게 다듬고, 새로운 꿈을 덧붙이는 터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중원대학교가 이러한 자유의 공기를 여러분의 가슴으로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결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이란 세상을 한껏 누려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맞이하게 될 인적·물적 시설을 분주하게 경험하고, 마주치는 사람, 장소, 도구를 하나하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신과 타자(他者)와의 관계를 잘 꾸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꿈과 사랑을 공유하고 존중해주는 낯설지만 따뜻한 선배, 동기, 교수, 직원과 돈독하게 지내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우리 학교를 사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서 발생하기 쉬운 갈등과 문화적 갭에 대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간극을 좁혀 나가면서 평화롭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윈윈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재단은 우리 학교의 하드웨어를 그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도록 꾸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부디 학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학습시설, 운동시설, 복지시설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마음껏 활용하시고, 공부와 여가를 충분히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갓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도전하고 성취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이 젊은 도전자로서 꿈과 미래를 이루는데 더 열린 자세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중원대학교에서 크게 힘차게 한 걸음 내디딜 시간입니다. 중원대학교 2021학번 새내기들 한껏 꿈을 펼치십시오!

2021. 3. 2.
대진교육재단 이사장
안 성 준



총 장
김두년

인성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만이 세상을 이끌 인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중원대학교 총장 김두년입니다.

중원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중원인이 되었습니다. 힘든 수험생활을 인내와 노력으로 이겨낸 여러분들을 중원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중한 자녀를 우리 중원대학교에 보내주신 학부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우리 중원대학교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골프실습장, 국제규격의 수영장, 승마교육원을 갖춘 국내외적으로 가장 쾌적하고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율, 교육비 환원율, 교수님들 연구실적, 취업률 모든 면에서 전국의 탑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원대학교를 선택하신 것은 아주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는 가풍이 있듯이 대학에도 교풍이 있습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우리 대학의 교풍을 알려드리고 협조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성과 덕성을 겸비한 인재로 거듭나주십시오. 요즘 대학생들은 입학하면서부터 스펙 경쟁에 내몰리고 있지만 스펙만으로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대학은 사람이 먼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원대학교 캠퍼스에서 인성과 덕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건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추어 주십시오. 국가가 필요로 하고 미래를 이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내의 천연골프장, 실내수영장, 승마장, 스포츠센터에서 운동하면서 튼튼한 체력과 건전한 정신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래가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갖추어 주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수한 전문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전공은 해당 분야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지도교수님과 선배들의 지도하에 미래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교직원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성대한 입학식을 열어드리지 못하고 지면으로 환영인사를 대신함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름다운 중원의 캠퍼스에서 반갑게 만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021. 3. 2.
중원대학교 총장
김 두 년



괴산군수
이차영

실패에 주저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다시 도전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켜주는 힘이 될 것 입니다.

꿈 많은 중원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만물이 새롭게 성장을 시작하는 봄의 문턱에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중원대학교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희생과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중원대학교는 2009년도 개교 이래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조적 인재육성이라는 교육 목적을 가지고 차별화된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최고의 교육환경으로 중부권 최고의 명품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의 가르침과 보살핌 속에서 세계를 향한 여러분들의 꿈을 중원대학교에서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에서도 여러분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게 될 괴산은 산자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고장입니다.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있어 아름다운 청정 자연환경을 간직한 괴산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생 중 학창시절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대학생이 되었다는 벅찬 감격과 설렘, 그리고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이 대학을 졸업할 때에는 확신과 자신감으로 바뀔 수 있도록 뚜렷한 목표와 명확한 비전으로 대학생활을 설계하고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미래는 언제나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의 것이고, 여러분은 이제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대학생활에서 마주칠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쉬운 길보다는 옳은 길을 향해 달려가길 바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실패에 주저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다시 도전한다면, 실패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켜주는 힘이 될 것이며,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괴산군민이 된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괴산군의회 의장
신동운

최선을 다해 인생을 꽃피우려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선인들의 가르침이 결코 그르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중원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설레임이 가득한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 희망찬 도전을 시작하는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대학 시절은 인생의 황금기라 불릴 만큼 여러분 미래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이제는 지난 고교 학창시절의 교과서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바뀔 것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로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올바른 가치가 사회발전의 등불이 되고 그 열정과 희망의 불꽃은 자신의 미래를 곧추세우고 나아가 국가의 발전의 토양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온갖 시련도 함께 할 것입니다. 늘 행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슬픔과 아픔, 그리고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생활을 통해 꿈과 야망을 키우면서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간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도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인생을 꽃피우려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선인들의 가르침이 결코 그르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신입생 여러분의 영예로운 입학을 거듭 축하드리며, 신입생 여러분 모두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 가득한 대학생활을 기대하면서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최두환

항상 감사는 값진 명예가 되어 반드시 누군가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학우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중원대학교 제10대 총학생회 드림 학생회장 최두환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입생 학우분들의 중원대학교 입학과 재학생 학우분들의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환영합니다.

인생에 있어 꽃을 피워내는 나이이기에 가장 아름답다는 20대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냈던 만큼 학우 여러분과 만나는 2021년을 내일 당장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새로운 내일이 다가오는 일을 불안해 하는 한해가 아닌, 또 어떤 행복한 일이 생길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저희 총학생회 드림은 학생은 학교의 주인이자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학우 분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로 세워진 자리인 만큼 학우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동으로 옮기는 학우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통하는 학생회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선배이자, 같은 학우로써 어떠한 순간에도 학우 여러분들의 편에 설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0년, 학우분들의 소중한 관심 덕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해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항상 감사는 값진 명예가 되어 반드시 누군가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은 학우분들께 이 감사한 마음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뒤돌아 2021년을 추억할 때 저희 드림과 함께여서 행복했던 한해일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언텍트 시무식’ 개최!



▲언텍트 시무식에서 김두년 총장이 시무사를 하고 있다.

소통을 통한 새로운 도약 다짐

우리 대학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4일 원격교육지원센터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2021년 언텍트 시무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무식에서는 작년 학기 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 여파에 묵묵히 소임을 다한 전체 구성원들을 먼저 위로하고, 구성원을 대표한 교직원 포상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 대학구성원들은 줌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김두년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대학은 최근 새로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며, “지난해 새로 모신 이사장님과 함께 일선에서 학생들과의 소통 행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학사제도 개편 등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의 세가지 당면과제로 “첫째. 신입생과 편입생 유치에 전 구성원이 나서서 모든 역량을 입시에 쏟아주기를 바라며, 둘째. 금년에 예정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 대학구성원들 모두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셋째. 코로나-19로 빚어진 언택트 시대의 교육은 기존의 대면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방식의 요구에 따라 원격교육을 포함한 언택트 시대의 교수법 개발과 학사행정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 언텍트 시무식 행사를 마친 김두년 총장과 교직원들은 교내식당에서 떡국 오찬을 함께 하며 덕담을 나누고 구성원들 간 신뢰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부〉

종교문화학과 김철수 교수, 부총장 임명


김철수 신임 부총장

우리 대학 김철수 교수(만60세, 종교문화학과)가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으로부터 신임 부총장으로 오는 1월 11일자로 임명됐다.

김 부총장의 임기는 2021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월 31일 까지다.

김철수 신임 부총장은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13년에 중원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교학지원처장, 도서관장, 대학원장 등의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김 신임 부총장은 앞으로 교무와 입학, 대내외 협력 관련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학발전을 위한 교육행정 전반을 이끌게 된다.

김두년 총장은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불확실한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대학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며 “앞으로 김철수 신임 부총장이 중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철수 신임 부총장은 “우리 대학은 새로운 변화와 도약에 있어서 타 대학보다 큰 강점이 있는 대학이다”라며 “앞으로 총장님과 뜻을 같이해 과감한 교육혁신과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중원대학교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편집부〉

작업치료학과, 국가고시 높은 합격률 쾌거!


▲ 작업치료학과 실습 사진

우리 대학 작업치료학과(학과장 김미정)가 지난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한 2020년도 ‘제48회 작업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졸업예정자 27명 중 26명이 합격해 96.2%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제48회 작업치료사 국가고시는 전국 총 2073명이 응시, 93.3%의 평균 합격률을 보였다. 작업치료학과는 지난해 100% 합격이라는 성과에 이어 금년에도 높은 성과를 기록한 것은 임상경력이 풍부한 교수진의 실무중심 교육과 다양한 기관의 임상실습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교육의 성과로 분석된다.

김미정 학과장은 “국가고시를 대비한 교수진의 지도와 모의고사 시행 등의 학과의 지원에 힘입어 이뤄낸 결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인성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작업치료사 양성에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업치료학과는 세계작업치료사연맹(WFOT) 교육인증과 한국작업치료교육인증 최우수 등급을 동시에 획득하여 작업치료 교육에 대한 인정을 받았으며, 의료보건 산업의 환경변화에 발 빠른 대처로 감각발달재활사, 보조공학사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겸비해 졸업생의 다양한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편집부〉

한국골프학회 ‘2020년 우수학술상’ 수상!


최상범 교수

우리 대학산학협력단 소속 최상범 교수가 지난 12월 11일 한국골프학회에서 ‘2020 우수학술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골프 인구 감소에 따른 골프 교육의 방향과 골프 산업 활성화 제안’이라는 주제로 골프가 가지고 골프 산업의 활성화 대안과 교육적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상범 교수는 “골프학회 학술상 수상은 전공 교수자로서 학문적으로 인정받은 최고의 영광된 표창으로 앞으로 침체되어 있는 대학 골프 교육의 발전과 골프 산업 활성화 방안의 현장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학술적 기여와 중원대학교의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골프학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서 국내 골프 분야 최고의 학회이자 한국골프를 대표하는 학술단체이다.

〈편집부〉

신소재공학과, 졸업생 8명 신성장 대기업 취업 성과!!

우리 대학 신소재공학과(학과장 이시춘)는 최근 2019~2020년 졸업생 8명(강혜지, 김재훈, 박광현, 신동주, 정지훈, 이승희, 이창진, 차정원)이 신성장 대기업군에 속하는 청주 ㈜아이티엠반도체 社에 취업했다고 12월 23일 밝혔다.

㈜아이티엠반도체는 이차전지의 보호회로 분야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액은 5천억 정도로 예상되는 신성장 대기업이다.

지난해부터 졸업생들이 다수 진출한 ㈜아이티엠반도체의 취업 성과는 중원대가 표방하고 있는 신성장융합 특성화 분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반도체공학, 전지재료 및 전기전자공학 등의 첨단재료산업 교육과 함께 CAD, 3D프린팅 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장 산업에 대한 실습교육의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신소재공학 엔지니어는 국가 경제의 중추로 여겨지는 반도체산업, 제2의 반도체로 일컬어지는 이차전지산업에서 메인 엔지니어로 활동하게 되는바 최근 인력 수요 급증이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시춘 학과장은 “학생들과의 CMP(맨토링교수지도제)를 통한 지도교수와 학생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우리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연계하여 학생의 질 높은 취업이 지속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 신소재공학과 재학생들은 졸업 후 반도체 재료 및 장비회사, 태양전지/이차전지 제조회사, OLED 디스플레이 등의 대기업과 형상기억합금, 지르코늄 등의 첨단세라믹, 항공복합재료회사, 포스코 등의 종합재료회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편집부〉


▲(주)아이티엠 반도체에 취업한 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교양학부 황연화 교수, '미국 대통령 특별상 금상' 수상



교양학부
황연화 교수

우리 대학 교양학부 황연화 교수는 부군인 권정찬 화백과 함께 최근 '2020년 미국 대통령 특별상 금상'을 수상했다고 12월 21일에 밝혔다.

황 교수는 세계미술공모전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여류 중견 작가로 국제미술공모전 등 각종 공모전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부군이신 권정찬 화백은 30대인 1980년대부터 국내·외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등을 통해 호평을 받은 한국화가로 국제예술인협회 총재 및 대한민국 소비자평가 미술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연화 교수와 권정찬 화백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한·미 상호교류를 통한 적극적인 봉사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금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황연화 교수가 받은 상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국가를 대표해 헌신적인 봉사에 대해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헌신과 봉사를 통해 협력과 신뢰의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일부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격려했다.

황 교수는 "중원대 소속 교수로서 미국 대통령 특별상 금상 (자원봉사상)을 받은 것은 평소 학교 당국의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들의 성원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교육자와 화가로서 해외전시회 및 교류활동을 한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미국 대통령 특별상은 2002년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봉사에 대한 세계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정한 미국 대통령 특별상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않은 부분에서도 묵묵히 봉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봉사 시간과 성격 등을 고려해 금상과 은상, 동상 등 등급이 정해진다. 〈편집부〉

아동보육상담학과 정효정 교수, '2020 보육유공자 대통령 표창' 수상



아동보육상담학과
정효정 교수

우리 대학 아동보육상담학과 정효정 교수는 지난 12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보건복지부 보육유공자 정부 포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현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4대 회장으로 봉사하며 우리나라 영유아보육 관련 연구와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등 평소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보육학계에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한국영유아보육학회는 1993년 창립 이래, 매년 2회의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연간 6권의 학술지 발행, 그리고 60여 나라와 도시에서 해외보육연수를 실시하는 등 괄목할만한 활동과 성과를 나타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보육정책위원회(중앙/광역시·도),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연합회 등 보육 유관기관에서도 많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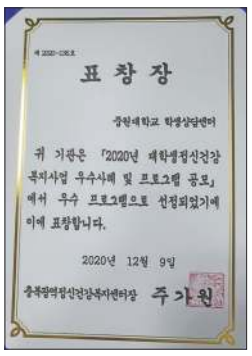


▲2020년 보건복지부 보육유공자 정부 포상식에서 표창장을 받고 있다.

한편, 정효정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학술활동을 바탕으로 '영유아를 최우선시하고 모든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전문적 자질을 겸비한 보육교사 양성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견인할 수 있으며, 학계·관계 그리고 보육현장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했다. 〈편집부〉

학생상담센터, 충북 대학생 정신건강복지사업 우수 프로그램 수상


표 창 장

중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귀 기관은 「2020년 대학생정신건강 복지사업 우수사례 및 프로그램 공모」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주 가 원

▲충북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받은 표창장

우리 대학 학생상담센터(센터장 유경미)는 최근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최한 2020년 대학생 정신건강 복지사업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고 12월 2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충청북도 내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간에 대학생 정신건강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큰 대학교 한 곳을 선정해 수여되는 상이다.

우리 대학 학생상담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발빠르게 대처하여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으며,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수검사를 통해 고위험 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개별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 블루(우울증 등) 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만들어 안내하는 등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꾸준히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및 우울증 증가로 인하여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대학생들을 위해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우울증, 스트레스 예방교육2(심화)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대학생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및 개입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유경미 학생상담센터장은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의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우리 대학 축구부 진필립 선수, '부산 아이파크' 입단



종교문화학과
진필립

우리 대학 축구부 진필립(종교문화학과 1학년) 선수가 지난 24일 부산 아이파크와 최종 계약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20학번으로 입학한 진필립 선수는 각종 연습경기 및 대회에 출전하였고, 이를 눈여겨본 부산 아이파크 관계자는 "진필립 선수의 여러 경기를 본 결과 신체적인 조건과 미드필더로 시작하여 골키퍼로 전향한 선수이기에 빌드업이 좋은 선수로 평가하게 되었고,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진필립 선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경기가 무산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저를 지도해주신 이세인 감독님을 포함한 코칭스테프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동기 및 선배들과 동거동락하고 함께 훈련하며 보낸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고, 그 덕분에 K-리그라는 새로운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K리그에서 전통 깊은 명문 부산 아이파크팀에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의 장점을 살려서 K리그에서 OOO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골키퍼라는 수식어가 붙은 선수로 성장하고 싶다" 고 다짐했다.

이세인 감독은 "대학 선수들이 프로 및 실업팀에 입단할 기회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입단 기회를 주신 부산 아이파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대학 축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와 관심을 바라며, 인성을 갖춘 훌륭한 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외에도 우리 대학 축구부 이재형(레저스포츠학과 4) 선수는 일본 J 프로리그 FC오사카와 김성식(레저스포츠학과 4) 선수는 태국 마에조 UNITED와 최근 계약을 완료했다.

〈편집부〉

우리 대학 박물관, 2020 꿈을 그리는 CAMPUS 展 개최

본교 교원 기증 미술작품 40여 점 전시
도서관, 생활관, 박물관, 학생식당, 카페 등 교내 시설 선정
코로나19로 대면 전시 관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편안하게 작품 감상

우리 대학 박물관(관장 이주희)은 최근 기증작품 교내전시 '2020 꿈을 그리는 CAMPUS' 展을 2020년 12월부터 여러 교내 시설에서 등지에서 개최한다.

박물관은 올해 초부터 "꿈을 그리는 CAMPUS 전시회" 관련 기증작품 유물(예술품) 기증을 추진한 결과, 본교 교양학부 이근우 교수와 황연화 교수의 기증작품 40여 점을 수증하였고, 감사의 수증식을 가졌다.

수증 받은 작품은 도서관, 생활관, 박물관, 학생식당, 카페 등에 다양한 그림 액자로 전시하며, 코로나 19로 대면 전시 관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직원, 학생 또는 방문객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준비했다. 특히, 교내 다양한 공간에 그림작품이 전시되어 벽면을 밝게 환기해 아트인테리어 효과뿐만 아니라, 안정감이 느껴지는 한국화를 전시하여 교육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교에 기증작품을 수증하신 교수와 총장, 박물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주희(한국어교육문화학과 교수) 관장은 "기증작품 추진 결과 뜻깊은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미술관을 직접 찾기 어려운 학생들이 더 쉽게 그림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업무와 학습으로 지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힐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바램을 전했다. 〈편집부〉

우리 대학 '충북권역 공동활용 소형 스튜디오 구축사업' 선정


▲학교 전경사진

우리 대학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최근 충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가 진행한 충북권역 공동활용 소형 스튜디오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대학교육 환경에서 충북권역 내 대학·전문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형스튜디오 구축을 통해 권역 내 대학 교수자들의 원격강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 간 원격수업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진행됐다.

한상훈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에 선정되어 구축되는 소형스튜디오를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원격교육을 제공하고, 충북권역 내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들과 함께 원격수업 관련 교육자원 개발 및 공유 그리고 교수자들의 원격수업 역량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은 ▲권역 내 대학 원격수업 혁신 ▲권역 내 공동활용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및 운영 ▲권역 내 공동활용 강의 녹화 스튜디오 등 구축 및 운영 ▲권역 내 공동활용 원격강의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등으로, 원격수업의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간 네트워크 활성화, 연계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편집부〉

우리 대학 의료공학과 출신 성명수 박사, 중국 남통(南通)대학 교수 임용


의료공학과 졸업생 성명수 박사

우리 대학 의료공학과 1기 졸업생 성명수(30) 박사가 최근 중국 강소성 남통시에 있는 남통(南通)대학 지능정보기술연구중심 부교수로 임용되었다고 6일 밝혔다.

성 박사는 지난 2009년 중원대 의료공학과에 입학해 2012년 조기졸업, 2014년에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석사학위를 마쳤으며, 2018년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기간 중에는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미국 캔터키 대학(University of Kentucky)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한국연구재단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광주과학기술원 박사졸업 우수 연구상, 퀄컴 이노베이션 어워드(Qualcomm-GIST Innovation award) 등 6개의 펠로우십을 단독으로 수여 받았다.

특히, 남통대학 임용 전에는 중국 상해에 위치한 상해교통대학에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그의 관심 분야인 의광학 분광/영상 기술 개발에 대한 우수한 연구실적을 쌓아왔다.

성명수 박사는 "우선 학부 시절부터 많은 도움을 주신 중원대학교와 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교인 중원대와의 연구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편집부〉

제12기 학생홍보대사 '가람' 임명장 수여식



▲제12기 가람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부총장 및 홍보교류실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2월 3일 대학본부 교무회의실에서 제12기 학생홍보대사 '가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8명의 학생홍보대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 학생들로 중원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해 다양한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 대학을 대표해 대학 주요 행사 의전, 고교방문 입시설명회 참가, 캠퍼스 투어,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현장 홍보활동과 대학 공식 SNS 운영 및 콘텐츠 제작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권슬아 홍보대사(항공서비스학과 3학년)는 "홍보대사는 중원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하는 대학의 얼굴이라고 생각한다"며 "홍보대사의 자질을 더욱 갖추어나가도록 노력하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감 넘치게 열정적으로 홍보대사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철수 부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준 11기 학생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오늘 임명장을 받은 12기 홍보대사 가람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홍보대사는 학생을 대표하기에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우리 대학 교육이념인 성, 경, 신을 지향하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육거리종합시장 상인회와 교류 협약 체결



▲본교 및 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 관련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12월 17일 오전 11시 대학본부 교무회의실에서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상인회(회장 성낙운)와 지역사회 경제발전 및 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정부 시책을 철저히 준수하며, 김두년 총장과 성낙운 육거리종합시장 상인회 회장을 비롯한 이광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소개 및 홍보 동영상 시청, 협약 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 캠퍼스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맞손 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와의 협약 후속 조치로써 학생 창업자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과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지역사회 경제발전 및 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학업 지원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통합적 교류 △교육훈련 및 재능기부 프로그램 상호교류 △시설 및 장비, 기자재의 공동 활용 △기타 상호발전을 위한 추진사업 협력 지원 등 상호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두년 총장은 "이번 육거리종합시장 상인회와의 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업 지원, 업종 선정, 연구개발, 기술지도, 전통시장 활성화 등 코로나로 경직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낙운 상인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상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원대학교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으로서 전국 최초의 마트형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선진 경영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이 감동하는 함께하는 시장, 활기찬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전통시장이다. 〈편집부〉

새해맞이 이웃돕기로 따뜻한 온기 전해



▲성금모금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학과장 이태규)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KBS 희망나눔 이웃돕기"에 따뜻한 마음을 기부했다고 1월 15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 모금은 연극영화학과 제10대 학생회(회장 노은지)가 새해를 맞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고자 지난해 12월 27일~30일까지 3일간 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 학부모가 모금에 동참했으며 성금을 지난 1일에 "KBS 희망나눔 이웃돕기"에 기부하여 따뜻함을 전했다.

노은지 학생회장은 "우리의 정성어린 작은 손길들이 모여 큰 손길이 되어 어려움 겪는 이들에게 따뜻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기부에 동참한 학과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태규 학과장은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와 교수진의 마음이 담긴 기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하길 기도한다"고 설명했다.

연극영화학과는 올해 창과 10년차를 맞이하는 학과로서, 이번 "KBS 희망나눔 이웃돕기" 외에도 매년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에 참여해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편집부〉

한국소비자협회와 상호협력 MOU 체결



▲총장과 한국소비자협회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지난 2월 2일 대학 본관에서 한국소비자협회(이사장 신용묵)와 공동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사회공익증진과 상호발전 및 전문인력양성,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통된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홍보를 지원하며,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공익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기술개발과 이에 관한 지식 및 정보의 상호교류 △학술교류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통합적 교류 △대학생 대상 소비자 인식교육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두년 총장은 "우리 대학과 한국소비자협회는 공공의 사회적 책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며,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묵 이사장은 "중원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협회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활동 중 특히 인재교육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우리 대학, '충주자유시장상인회' 와 맞손



▲본교 및 충주자유시장 상인회 관련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1월 27일 오전 11시 대학본부 교무회의실에서 충주자유시장상인회(회장 장재흥)와 지역사회 경제발전 및 사회공익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정부 시책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두년 중원대 총장 및 장재흥 충주자유시장상인회 회장과 이광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보직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의 가교역할로 성사되었으며, 학생창업자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과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경제발전 및 사회공익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학업 지원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통합적 교류 △교육훈련 및 재능기부 프로그램 상호교류 등 상호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두년 총장은 "이번 충주자유시장상인회와의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학업 지원, 업종 선정, 연구개발, 기술지도, 전통시장 활성화 등 코로나로 경직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생하는 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재흥 상인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원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상인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자유시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대규모 관광형 시장으로 자리매김한 전통시장이다. 〈편집부〉

2021년 전기 학위수여식 온오프라인 개최!



▲김두년 총장이 졸업식사를 하고 있다.



▲총장님이 졸업생 대표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있다.



▲최근 새로 지어진 중강당에서 2021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진행하는 모습이다.



▲졸업식 후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졸업을 축하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19일 오전 11시 교내 중강당에서 '2021년 전기 학위수여식'을 축소 개최했다.

이번 전기 학위수여식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축소 개최를 결정하고, 대학 주요 보직자들과 각 학위별 대표자, 상장 수여자 등만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됐다.

이어 각 학과별로 줌을 통한 온라인 학위수여식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김두년 총장은 "지난 4년간 학문적 탐구를 위해 노력하고, 인성과 상생을 배우며 영광스러운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하고,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중원대를 세계 속의 명문사학으로 만들고, 항상 여러분들을 후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하여 학사 688명, 석사 10명, 박사 6명 등 총 704명의 졸업생들이 학위를 수여받는다. 졸업생은 추후 소속 단과대학별로 학위증, 수상자의 상장 및 상품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우리 학교는 오는 25일까지 학위가운을 대여하며, 대학본관 앞에 설치된 별도의 포토존에서 졸업생들이 대학에서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편집부〉

학생소통 이벤트 '달달드림~ 총장님이 쏜다!' 개최



▲총장이 사생자치위원회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김두년 총장은 지난 12월 10일 저녁 9시 생활관을 깜짝 방문, 학생소통 이벤트 '달달드림~ 총장님이 쏜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두년 총장이 기말고사 기간 학업에 열중하는 재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생활관 내에서 공부하는 재학생 1천여 명에게 '달달드림 쿠키세트'를 나눠주며 학생들에게 작은 마음을 전했다.

최영민(항공기계공학과 16학번) 학생은 "코로나19와 기말고사로 인해 심신이 많이 지친 힘든 상황이지만, 격의없이 늘 옆에 계신 총장님의 소소한 배려와 관심 덕분에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라며 "항상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총장님이 너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두년 총장은 "코로나19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며 "학생소통 이벤트뿐만 아니라 항상 학생들 옆에서 귀 기울이고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사랑 소통 캠페인'은 총장의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이어오며, 시험기간 외에도 학생들을 위로하고 소통할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편집부〉

국제교류원, 외국인 유학생 입국대비 방역체계 구축



▲외국인 유학생이 사전격리동에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내리고 있다.

우리 대학은 2021학년도 신학기 외국인 유학생 입국 시기에 맞춰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괴산군과 우리 대학교가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입국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즉시 중원대 내 자가격리동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괴산군과 우리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입국 예정일, 입국 절차 등을 공유하여 입국 전부터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외국인 유학생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철저한 관리를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국제교류원 소속의 외국인 학생 대표단(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은 자가격리 기간(2주) 동안 자가격리자의 모니터링 관리와 불편함 최소화를 위한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하여 방역 당국과의 가교자 역할을 수행 함으로써 입국자의 건강과 방역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감염병 확산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원활한 학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춘련 국제교류원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안전하게 입국하여 철저한 방역 지침 속에 자가격리 기간을 마칠 수 있도록 괴산군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괴산사랑운동 '꽃같은 花요일' 동참

우리 대학 김두년 총장은 지난 16일(화)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군민 소비진작운동 '사구팔구 괴산사랑운동' 캠페인 중 하나인 '꽃같은 花요일'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시행한 '꽃같은 花요일' 캠페인은 매주 화요일 꽃을 구매하여 관내 화훼농가와 꽃집을 돕기 위해 펼치는 캠페인이다. 이외에도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구팔구 괴산사랑운동 캠페인'으로 △퇴근길 음식포장 SNS 인증 이벤트 △괴산군공무원 전통시장 장보는 날 운영 △공직자 런치투어 △괴산사랑 착한先결제운동 △괴산사랑카드 소비지원금 이벤트 △괴산군 으뜸점포 스탬프투어 △먹깨비 앱 이용 촉진 이벤트 등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두년 총장이 꽃같은 화요일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김두년 총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범군민 운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대학은 지역중심대학으로써 대학구성원 모두가 적극 동참하며, 대학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역량을 최대한 펼쳐 군민들의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중원인(中源人)이여, 시혜불념(施惠不念)하고 수은불망(受恩不忘)하시기를

박현준 교수, 떠나시며 중원인들에게 메시지 남기다.

박 현 준 (경찰행정학과 교수)



1. 프롤로그

시혜불념(施惠不念; 베푼 것은 염두에 두지 말고)하고 수은불망(受恩不忘; 은혜를 받은 것은 추호도 잊지 마라)하라는, 다산(茶山) 선생의 가르침을 삶의 모방으로 삼고 가슴에 담아오고 늘 학기 초에 수업 모두(冒頭)에 제자들에게 강조하던 내가, 경자년(庚子年) 세계를 뒤 덮은 코로나19에 지쳐있던 탓인지 아니면 점점 다가오는 교직을 마감하는 날이 가까워 언론기자에 요청에 따라 중원인들에게 남기고 싶은 글을 몇자 조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경북 울진의 오지(奧地)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내고 청운을 품고 대지인 대구로 유학와서 중·고교를 거쳐서 경북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좀 늦게 지방의 어느 대학교에 재직하여 15·6년간 제자들을 양성하다가, 요행하게 기회(機會)가 주어져서 2012년 9월에 중원인이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원캠퍼스에서 자긍심(自矜心)을 가지고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지도와 편달로써 가르침에 전념하였습니다.

그간 방학(放學) 때는 코이카(Koica) 등의 후원으로 전국대학생 30여명을 인솔(引率)하여 단장으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교육봉사, 위생봉사, 노력봉사 등 해외봉사(海外奉社)를 다녀왔습니다. 그중 우간다에 다녀온 사연을 몇자를 적으려 합니다. 다소 의견의 다른 분들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줄없이 표현하고자 합니다.

2. 중원인이여,

이제는 한번쯤 누군가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라!

'A dream to Africa's children' 이라는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생 26명을 인솔하여,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인 동아프리카의 우간다에 2017년 1월 15일부터 2주간 제33기 WFK 청년해외봉사단을 인솔하여 다녀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2015년부터 저의 추천으로 주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해외봉사의 로망을 가지고 총 30여명이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 에티오피아, 세네갈, 마다가스카라, 스리랑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의 여러 빈곤국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그 학생들은 지금 우리 학과를 빛내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늘 나는 그들을 제자로 둔 것에 흐뭇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당시 제 33기 WFK 청년 해외봉사단으로 돌아와 그때 저희가 파견된 지역은 지금 한창 내전 중인 남수단의 톤즈와 국경을 접한 우간다 북부의 글루(Gulu) 지역으로, 인천공항에서 아부다비공항을 경유하여 아프리카 사막 위를 비행하여 적도부근의 엔테베공항에 도착하는 총 24시간 가량 장기간 비행 후, 공항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빅토리아 호수를 지나치며 총7-8시간 거리에 있는 '아촐리(Acholli)'라는 부족이 거주하는 '딩기디'라는 오지(奧地)마을 지역입니다.

1960년 한국의 오지(奧地)인 경북울진 산골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저였지만, 그들의 생활환경을 그때보다도 더 열약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운영하는 킴스쿨이 그들의 유일한 교육기관이었고, 대부분은 학교는 어린아이가 맨발로 1시간 이상씩 걸어야만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도 아이들의 부모가 너무도 가난하여 집에서 집안일을 도와야 해서 문맹상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이 부족하여 마실 물만 구할 수 있어 자주 씻지 못하고 아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있어 성인으로써 성장률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봉사하는 내내 자주 눈시울이 적셔졌습니다. 또한 우리의 젊은 단원들도 봉사하는 내내 가슴이 아파 모두들 눈동자가 충혈되도록 많이 울었습니다.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며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노래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둥글게 둥글게'의 놀이도 가르치고, 그들의 손발을 어루만지고 함께 술래잡기도 하면서 그들과 눈을 맞추기 위하여 애를 많이 썼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남루한 학교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푸른 바다도 그려주고, 그들의 조그만 손바닥과 우리의 손바닥으로 두 그루의 희망나무도 함께 그렸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경직된 그들의 얼굴에 조그만 웃음과 희망을 찾아주고자 40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웃으면서 봉사라는 명목으로 땀을 흘렸습니다.

봉사(奉仕)를 시작하는 첫날 평가시간에, 젊은 단원들에게 백범 김구선생이 즐겨 암송하셨던 시를 들려주고 의미를 설명해 주고 삶의 자세를 알려주었습니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답설야중거 불수호난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일정), 눈덮힌 들판을 밤에 걸어갈 제에,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를 마라, 오늘 내가 지나는 발자취는, 뒤따르는 이의 이정표가 되리니." 비록 봉사라는 미명으로 우리가 이들 앞에 서지만, 어떤 이의 앞에 서는 기본적인 자세를 알려주면서, 최고가 아니라도 좋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가르치고 다짐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먼 훗날 이 아이들의 이정표가 되리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꿈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꾸어지는 것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고 봉사 마지막 날, 학교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아촐리 아이들이 준비한 조촐한 송별회(送別會)가 있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선생님! 저희를 두고 제발 가지 마세요. 진정 가시려거든, 고향에 돌아가시면 꼭 편지하세요." 헤어짐의 아쉬움을 눈물로 나누고, 전깃불도 없는 어두운 교실에서 오늘따라 유난히도 빛나는 흰 이빨을 보이면서 아이들이 합창으로 불러주는 아촐리 원주민의 작별의 노래를 뒤로하며, 단원들은 아이들의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과 모습을 가슴에 안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 한마디 시원하게 남기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딩기디'의 아이들을 떠나 왔습니다. 아직도 그곳의 모든 것이 호흡처럼 느껴지는 지금! 순수하고 맑은 그 아이들의 모습이 또 하나의 별로 남아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들의 꿈의 별이 되고자 갔는데, 우리의 가슴에 더 큰 그리움의 별을 안고 돌아 왔습니다. 결코 지워져서는 안 되는 동아프리카의 별, 인류의 별들을..... "Make all children in the Acholli happy" 하면서, 늘 가슴으로 조용히 빌어 봅니다.

2020년 11월 지금 해외봉사를 되새겨보니, 2015년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스빠시바"를 수줍게 인사하던 키르기스스탄의 피부가 유난히도 흰 어린 '아셀', 2017년 1월 반짝이는 눈빛으로 장래 희망이 선생님이라 하든 13살의 우간다의 페인트칠 잘 하는 '아바지'와 안구암 수술로 한쪽 눈밖에 볼 수 없음에도, "아마리" 하면서 손을 흔들고 이제 가시면 언제 다시 오시냐며 우리가 알아듣게 쉽게 서툰 영어(英語)로 물어보던 '플로렌스', 어린 그녀의 하나 밖에 없는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 "나마쓰테"를 외치며 밝게 웃던 네팔 에마뉴엘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는 지진으로 부모를 잃고 두려움의 트라우마가 가시지 않는 '스잔나'와 2019년 1월에 본 뇌성마비 장애로 몸이 뒤틀린 가운데서도 휠체어에 앉아서 힘든 몸으로 한국의 태권도를 따라하던 모로코의 압둘라의 모습이 생각나서 다시금 가슴이 아파져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모두를 다시 보면서 손 한 번 더 잡아 주고 싶고 어깨를 힘차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퇴직 후에도 코이카 실버 단원으로써, 해외봉사를 다시 가고 싶었던 저의 계획이,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중단되고 무산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 글을 마치며

– Make all people happy –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순간에, 1965년 경에 경북 울진 산골학교에 평화봉사단으로 오셔서 내게 오늘을 있게 한, 이름 모를 미국인, 그 선생님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분은 파란 눈을 가지시고 키가 엄청이나 크셨으며 무척이나 마음이 참 따듯하셨습니다.

옛 글에 호사유피(虎死留皮)요 인사유명(人死有名)이라,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사람의 이름이 호랑이 가죽보다도 나은 법이고 악명(惡名)과 허명(虛名)과 무명(無名)이 낫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 석자, 박현준을 남기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서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중원인(中源人)에게는 알리고 가르치고 싶을 따름입니다.

중원인(中源人)이여, 우리는 세계의 어려운 나라를 잊으시면 안 된다고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원을 떠나면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중원(中源)은 영원한 여러분의 모교(母校)입니다. 늘 사랑하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중원인(中源人)에게 고(告)합니다. 시혜불념(施惠不念)하고 수은불망(受恩不忘)하시라고.....

우리 교수님 자랑 좀 하고가실게요~



대학선택의 기준! 학비, 기숙사, 시설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육의 질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없는 사실입니다. 대학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건 교수님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중원대학교의 교수님들은 학계에서 얼마나 인정받으시는지 궁금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교수님들을 찾아가 논문을 소개하고 학계에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어디 함께 보실까요?

의생명과학과 이화용 교수님



Q. 안녕하세요. 본인의 소개와 연혁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생명과학과 교수 이화용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소의 생식 내분비전공으로 석, 박사학위를 마치고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UBC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2년가량 연구원 근무를 하면서 난임과 생식 내분비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에서 2년간 선임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시작했고 현재는 중원대학교 의생명과학과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으며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Q. 교수님이 작성하신 논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즘에 주로 게재하는 학술지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Cell의 자매지인 Molecular Therapy라는 저널입니다. 관련분야 상위 5.1%이며 논문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근거자료 중 하나인 Impact factor는 8.986입니다. 2018년도에는 Nature의 자매지인 Cell death and differentiation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바도 있습니다. 이외에 Cancers라는 저널에 논문도 여러 차례 게재했습니다.

Q. 논문 내용을 학생들에게 풀이해서 설명해주세요.

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은 성체줄기세포의 치료 효능을 향상하게 시키는 다양한 신물질을 발굴하고 관련 작용 기전을 연구하는 것들입니다. 줄기세포는 다른 줄기세포에 비해 윤리적인 문제 및 체내 이식하였을 때 암을 유발할 기능성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에서도 약 20년 전부터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대부분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 1상 또는 1/2상에 머물고 있으며 본격적인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 3상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성체줄기세포 대부분 활발히 상용화되지 못하고 임상 1상 또는 1/2상에 머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체줄기세포의 치료 효능 부족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성체줄기세포 연구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낮은치료 효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성체줄기세포 치료 효능 향상 신물질을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논문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WRS), (GRS), (SHH) 등 여러 성체줄기세포의 치료 효능을 향상하는 신물질을 발굴하여 앞서 말한 Molecular therapy 및 Cell death and differentiation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Q. 그 연구가 학계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현재 급격한 노령화로 인하여 당뇨 및 알츠하이머와 같은 노인성 질환과 장기 이식 이외에는 치료 대안이 없는 여러 난치성 질환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체줄기세포 치료 효능 향상 연구가 성과를 거둔다면 현재 당뇨 및 알츠하이머 그리고 장기 이식 이외에 치료 대안이 없는 여러 난치성 질환들에 대한 성체줄기세포 기반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성체줄기세포는 배아나 유도만능줄기세포와 비교해 발암성이 극히 적고 윤리적인 문제가 거의 없어 세계적으로도 활발히 상용화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신약 개발 연구들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성체줄기세포 연구 역시 향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마지막으로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현재 반도체 및 인공/빅데이터 분야 못지않게 21세기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생명 연장 및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에 기초가 되는 의생명과학 분야입니다. 우리 중원대학교 의생명과학과는 여러 생명공학 관련 다양한 커리큘럼이 훌륭히 마련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따라서 본 학과의 여러 교수님들 역시 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니 학생들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현재 주목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생명과학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양학부 이근우 교수님



Q. 자기소개와 더불어 교수님이 작성하신 학술자료 및 전시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양학부 이근우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참여한 것들에는 다수의 연풍 현감김홍도와 상암사관련 도서 발간과 논문, 전시전이있습니다. 종류로는 연풍 현감김홍도와 상암사학술자료 특별전(연풍초등학교), 좌담회(연풍면), 청주 KBS 뉴스 방송, 연풍 조령 문화축제(연풍면), 2019년 연풍 현감김홍도 부임 228주년 기념 학술발표(괴산문화원), 《연풍 현감김홍도와 상암사 이야기》 출간 및 연풍 현감김홍도와 상암사관련 창작 작품발표전, 연풍 현감 바로 알기 아카데미 등을 참여 및 개최하였습니다.

Q.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김홍도라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김홍도는 조선 시대 도화서 화원과 관료라는 두 역할을 이루어낸 보기 드문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김홍도는 조선 당대 최고의 도화서 화원을 대표합니다. 조선 시대 도화서를 논할 때 김홍도는 그 중심에 있으며, 그의 그림 인생에 있어 도화서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도화서 화원에게 있어 최고의 명예는 어진도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명예를 얻은 화원이 바로 김홍도이고, 그 공로로 연풍 현감이 되었습니다. 김홍도는 관료가 될 수 없는 중인 출신입니다. 하지만 특출한 재능으로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화원으로서는 보기 드문 관직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괴산군 연풍면에서 연풍 현감으로 1791년 12월 22일부터 1795년 1월 7일까지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괴산군 연풍면은 정조 → 김홍도 → 도화서 → 어진 →현감 → 괴산 연풍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의 연구가 학계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 있나요?

풍속화가 김홍도 그림에 대한 연구성과는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하지만 연풍 현감 김홍도와 상암사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단계입니다. 본인은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고, 그동안 풍속화에 집중되어 있던 김홍도에 관한 연구에서 그의 인생과 예술에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하였다는 점이 학계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면 영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괴산군민, 법주사 등은 이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계와 지역에 미친 영향을 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정리로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발표되지 않은 연풍 현감 김홍도와 상암사에 대한 연구. 둘째, 학술 및 창작 작품과의 연계 시도. 셋째, 지역문화 발굴 홍보. 넷째,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와 자긍심 고취. 다섯째, 타지역과의차별적 문화홍보. 여섯째, 지역문화 발전 기념사업으로서의 가능성 제시.

Q. 그러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괴산군은 김홍도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픽션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김홍도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에 관한 연구 및 기념사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맥락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연풍 현감 김홍도 등과 관련한 연구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홍도 그림 인생 연구에 있어 괴산 연풍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지만, 연풍 현감 김홍도에 대한 기념사업으로 “국립 도화서” 건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도화서는 우리 민족문화의 자긍심이며 뿌리입니다. 오늘날 한국 예술문화의 근간을 만들어 낸 곳이며 한국 미술 교육의 효시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36년, 일제 치하에서 언제 어떻게 도화서가 없어졌는지 기억하고 이에 대한 후속 기념사업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는 바로 우리 민족문화의 뿌리 “국립 도화서”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Q. 재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찬란했던 역사와 문화도 사람이 찾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관심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천재라 불리던 다산 정약용은 18년 강진 유배에도 그는 자신 앞에 놓인 삶에 절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산이 두려워한 것은 오직, 정체된 채로 늙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삶이 불안하고 정체감을 느낄 때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했기에 어느새 잃어버린 기본, 바로 어른다움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른이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성숙해지는 존재입니다. 바로 하루하루를 어른답게 살고자 하는 습관이지요. 우리 중원대학교 학생들도 이 가르침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멈추지 않고 성숙해지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경찰행정학과 박현준 교수님



Q. 안녕하세요. 소개와 연혁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현준입니다.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법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경주대학교 경찰법학과에서 15년간 재직했으며 2012년 9월에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와서 형법·형사소송법과 경찰 행정법 및 한국사를 강의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립 중앙경찰학교의 형법 외래교수를 2015년부터 담당하고 경찰 관련 각종 시험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이 작성하신 논문 또는 학술자료는 어떤 것인가요?

‘법학 연구’는 한국의 법학 교수 및 법실무가 350여 명 이사단법인으로 설립한 ‘한국 법학회’의 전문학술지로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매년 4번 발행(1회 20여 편의논문 수록)하는 법률전문 저널입니다. 2019년 6월에 발간된 「법학 연구제19권 제2호」에 본인의 연구인 “구간단속과 명확성의 원칙”이 실렸습니다.

Q. 논문 내용을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해주세요.

이 연구는 형사법과 경찰행정작용에 관한 것으로 근래 공권력의 작용에서 특히 경찰작용에서 결과의 정당성으로 인하여 과정의 정당성이 많이 훼손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교통 사고방지라는 결과를 두고 헌법적 가치인 명확성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작용이 다반사이기에 본 연구를 하였습니다. 즉, 어떠한 행위가 행해지고 그 행위의 가치를 진정한 민주주의하에서는 평가할 때 절차적 정당성과 목적의 정당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고 가치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공정과 공평성이 보장되는 사회이고 따라서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하여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얻은 목적은 ‘독수의 과실’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Q. 연구가 학계에 미친 영향과 그러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이나 공권력 작용과 적정절차(due process),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의 연구 등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경찰 활동 실무에서도 많이 참조하여 교통단속업무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많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과를 가지고 업적평가와 대민홍보에 치중한 나머지 헌법적 가치인 적정절차와 명확성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서도 헌법적 가치가 많이 훼손되고 있으나 워낙 결과를 중시하는 사태이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 무시해도 수인하고 있듯이 말이죠. 이러한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이 가장 근접합니다.

Q. 신입생 또는 재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정당한 삶은 과정도 중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커닝으로 좋은 학점을 받는 학생을 보면 왠지 기분이 상합니다. 아마도 본인도 편하지는 않을 것이죠. 그런 집단은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회가 될 것이고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아니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공정은 언어와 글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죠. 속이면서 본인만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원대학교 학생들은 정직한 삶을 추구하고 그를 위해 정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25호 2021년 03월 02일 화요일

슬기로운 중원대학교 생활

부서 소개편

신입 및 재학생 여러분! 우리 학교에는 어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떤 면이 새롭게 변화하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중원대학교 학생들의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위한 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아보러 가실까요? 최민경 기자, peyy0520@naver.com

1. 학생들의 취/창업 고민 문제 해결, 취창업지원센터

취창업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학단계에서부터 자기 이해를 심화하고, 정확하고 신뢰로운 직업 및 취업 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진로를 준비하여 학생이 원하고 학생에게 적합한 사회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서 이용 전 중원대학교 취창업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양한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소개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더욱 더 효율적으로 부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	아카데미 4층 A401호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전화번호	전화 : 043-830-8123~5, 8128 / 팩스 : 043-830-8129
홈페이지	http://job.jwu.ac.kr

Tip 재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휴게공간으로서 취업 · 창업 관련 책자와 취업 · 창업 정보검색을 위한 컴퓨터, 온라인 모의 면접기를 이용할 수 있는 취 · 창업카페가 S201호에서 평일 09:00~18:00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고민 No 스트레스 No, 학생상담센터

학생상담센터는 각기 다른 원인으로 대학생활 및 일상생활 속에서 고민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입니다. 개인상담, 집단 상담, 각종 심리검사와 결과 해석이 이루어지고 법정의무교육 및 정신건강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에 대처하고 올바른 성인식을 형성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성고충 상담소입니다.

위치	아카데미 4층 A401호 ※상담장소는 별도
운영시간	월~금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전화번호	043-830-8142~8145
홈페이지	http://counsel.jwu.ac.kr/

Tip 각종 심리검사와 결과 해석에 참여하는 것은 비교과 시간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신청서 작성 제출 – 일정 확정 안내 – 심리검사 및 상담 실시 – 사후 관리

3. 학생들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센터는 건강하고 안전한 대학 생활을 위하여 재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교육, 질병 예방 활동을 통한 건강 유지 및 증진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치	생활관 통합행정사무실 2층 (D212호)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월 – 금, 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낮 12시 – 오후 1시
전화번호	043) 830 – 8292~3

이용절차 본교 건강관리센터 방문 – 학생증/교직원증 제시 – 전산확인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록 – 투약 및 처치

Tip 지정병원제도 시행 : 괴산서부병원 및 서울 더블유 치과병원에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 및 교직원, 가족이 방문시 소정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진료병원	할인 적용 범위	비고
괴산서부병원	외래, 입원 20% 할인	학생 (학생증 소지자), 교직원
서울더블유 치과병원	비 보험수가 전 항목 20%	학생(학생증 소지자), 교직원, 가족

4. 필승! Yes, I can! 예비군 훈련 소개, 직장예비군대대

직장예비군대대는 중원대학교 학생, 대학원생, 교원, 직원이 학업과 연구와 업무에 전념하면서 유사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조직 활성화 및 예비군훈련에 관한 일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원대학교 남 · 여 대학(원)생들에 대한 병무 및 국방취업 상담을 실시하여 병역으로 인한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교직원 포함 예비군 훈련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여 원할한 학사 일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병무청 및 군 관련 대외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협력을지원하는 곳입니다.

위치	본관1동(M1) 208 – 2호 *본관 2층 로비 중앙현관 옆
운영시간	09:00~18:00 *사전 요청시 18시 이후 야간상담 가능
전화번호	043) 830 – 8191~2

5. 중원대학교 학생들의 교통수단 문제 해결, 교운부

교운부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 및 읍내에 갈 시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통학하는 학생들 및 학교 교통수단인 셔틀 버스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방문할 수 있는 곳입니다.

Tip 매년 학생들의 이용 빈도수 및 코로나 사태로 인해 노선별 운행/배차시간이 달라지는 점과 교통편 관련 사항은 교운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	학생회관 S205호
운영시간	09:00~18:00 (월~금)
전화번호	043-830-8153
홈페이지	http://bus.jwu.ac.kr

6. 밝은 인재 육성을 위해 힘쓰는 곳,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수님들을 위한 교수지원,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 더불어 매체 및 이러닝 강좌를 지원하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최고의 교수/ 학습 역량을 갖춘 '중원의 고수' 양성을 목표로 많은 학습 자료들이 제공되는 곳입니다.

위치	아카데미 4층 (A401호)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전화번호	043-830-8132~4
홈페이지	http://ctl.jwu.ac.kr

7. 중원대학교 학생들의 제 2의 집, 생활관

성실, 경건, 신념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규율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로 미래상생 사회건설의 역군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통하여 학업에 정진하고 원만한 인격도야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위치	남자생활관, 여자생활관	운영시간	주간 09:00~18:00, 야간 18:00~
전화번호	남자 생활관 : 043-830-8242~8246, 8248(야간) 여자 생활관 : 043-830-8252~8256, 8258(야간)		
홈페이지	http://dorm.jwu.ac.kr/		

Tip 생활관 시설 소개 및 장학 혜택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8. 중원대학교 학생들의 알리미, 전산정보팀

전산정보팀은 중원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학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대학주요사이트, 통합정보시스템, 전자출결, 통학버스 온라인 예매 등의 대학 포털 사이트와 현 중원대학교 비대면 수업시 사용되는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위치	아카데미 4층 (A408호)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전화번호	043-830-8217

Tip 중원대학교 포털 사이트: http://portal.jwu.ac.kr / 중원대학교 클라우드 시스템: https://cloud.jwu.ac.kr 이 두 개의 사이트를 접속하면 위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학생들의 어려움을 한방에, 학생원스톱센터

학생원스톱센터는 학생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업무를 단일화된 창구에서 1회방문과 "무정지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장학금, 휴복학 및 학생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치	본관 1동 4층 중앙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전화번호	043-830-8583

Tip 학생원스톱센터 앞에는 증명서 발급기가 있어 졸업증명서 및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10. 등록금 수납은, 재무회계팀! 학점에 대한 어려움은 학사팀!

재무팀회계팀은 등록금 수납을 맡고 있어, 등록금 기간에 어려움(분납납부, 등록금 0원 납부)이 있으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학사팀은 수강 신청, 학점관리, 졸업요건등 단대를 통해 진행되는 학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곳으로 학점관리가 필요할 때 꼭 문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위치	재무팀 : 아카데미 4층 (A406호) 학사팀 : 아카데미 4층 (A408호)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전화번호	(재무회계팀) 043-830-8274 / (학사팀) 043-830-8095



중원대학교

졸업생을 만나다





중원대학교에는 각자의 길을 열심히 걷고있는 자랑스런 동문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늦은 나이에 중원대학교에 입학하여 생업과 학업을 병행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중원대학교 12학번 졸업생 이성규님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원대학교 12학번 졸업생 48세 이성규입니다. 이번에 건국대 충주캠퍼스에서 운동역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본업으로 괴산에서 태양광 발전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과학과를 전공했었고 7학기 수강하고 조기졸업을 했습니다.

Q. 중원대학교 입학을 결정한 이유는?

예전부터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골프는 나이가 있어도 접근이 용이하고 사회에서도 많이 즐기는 스포츠여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골프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찾던 와중 제 본적이 괴산이었고 직장과 가깝기도 했으며 골프장과 같은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고 교수님들도 명망 있어 중원대학교에 입학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원할 당시 중원대학교 입시 전형중 성인학습자 전형이 있어서 수시전형으로 입시 지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Q. 본업과 학업을 병행하기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저의 본업인 태양광 발전에 관련된 일은 대부분 무인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안 바쁜 것도 아니었지만 최대한 학업에 할애하기 위해 무인화 설비도 늘리고 시간을 쪼개가며 실기준비와 공부를 했었습니다. 또한 본업이 있다고 학업에 소홀한 것은 동기학생과 교수님에게도 누가 될 수 있고 늦은 나이에 입학했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도 해보고 조기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전공과 본업이 크게 연관이 없으신 것 같은데 박사 과정까지 거치신 이유가 있나요?

주변에서도 저에게 하는 질문인데요. 하고 싶은 것을 직업으로 삼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해야 하는 것의 경계가 존재하잖아요. 우선은 본업의 문제로 잠시 하고 싶은 것을 안하고 있다가 제가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본업과 관련된 지식은 더 배울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 제가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고 배우기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나중에 직업을 다른 것들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전공과 관련된 사업도 가능은 하리라 봅니다.

Q. 학기 중 얻은 것은 무엇이 있나요?

골프를 배워서 꽤 칠 줄도 알고요. 저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프로가 된 경우도 있어서 인맥도 쌓아 갈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그리고 혜택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성적 장학금도 많이 받았었고 공부를 열심히 했기에 졸업하고 건국대 석사과정 받을 때 첫 학기 장학금까지 감면 된 것 같더라고요.

Q. 학교에서 생활 중 생각나는 일화는?

저는 다른 학생들과 같이 생활도 해보고 싶어서 잠시 기숙사 생활도 했었는데요. 현재 중원대학교의 총장님이 당시에는 생활관 관장님이셨어요. 총장님이 따로 부르셔서 저 같은 성인학습자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응원해주는 말을 해주시기도 해서 다양한 조언을 듣고 힘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Q. 후배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대학생활 4년동안 다양한 것들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사실 대학교 4년이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에 아무 생각 없이 책 들고 다니며 강의 듣는 것보다 향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머리속으로 그려보며 대비도 하고 목표도 만들며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중원대학교 학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25호 2021년 03월 02일 화요일

총학생회 DREAM! 우리의 꿈도 이루어 DREAM!



2021년 1년 동안 오로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하여 발 벗고 뛰어줄 총학생회 학우분들을 저희 JR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 곁에서 함께해 줄 제10대 총학생회 〈드림〉!! 함께 만날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희와 함께 GO GO~ 이현복 기자 ne3h3b@naver.com

총학생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문화대학 무예경호학과 재학 중인 총학생회 회장직을 맡게 된 16학번 최두환입니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모든 학우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를 믿고 투표해 주신 학우분들을 위하여 저희 드림은 학생들에게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애로사항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16학번 부총학생회장 이홍렬입니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전에 진행되었던 11월 선거가 온라인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저는 항상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꿈꾸고,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늘 처음과 같은 마음인 초심을 잃지 않고 성장하는 총학생회가 되어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고, 항상 학생의 입장에 서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모두가 원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마음가짐을 항상 총학생회가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는 학교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학우분들께 질문합니다! 드림은 어떤 곳인가요?

우선 '드림'이란 학생들이 꿈꾸는 학교를 만들어 드린다는 뜻으로, 우리 중원대학교 학생들이 꿈꾸는 학교를 만들고자 뜻이 같은 학생들과 함께 나온 단체입니다. 저희는 항상 학생들과 소통하여 학교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항상 노력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학교가 늘 똑같은 학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분명 어디선가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선 사람들은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꿈을 꾸고 싶다며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 '드림'이 그 시작점에 서서 더 나은 학교를 위해, 학생을 위해 앞장서 자부심이 되어주고 흔들림 없는 기둥이 되고자 합니다.

교육복지국장

변화를 만들어내는 교육복지국장 의료뷰티케어학과 17학번 양지은입니다!

교육복지국은 무슨 일을 하나요?

저희는 교내 학우분들을 위한 모든 복지 및 교육 관련 업무 담당하는 학생 단체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 다양한 외부업체들과 제휴를 맺어 학생들을 위한 유익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교육복지국장 후보일 때부터 학우분들께 약속드린 건 딱 하나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배움을 제공하고, 그 배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써야 하며, 배움에 대한 만족이 그 무엇보다 대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항상 마음속에 품으면서 '보다 나은 학교생활', '보다 나은 교육의 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복의 유일한 길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유익한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안녕하세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벤트를 만드는 문화체육국장 무예경호학과 17학번 한상훈입니다.

문화체육국은 무슨 일을 하나요?

저희 문화체육국은 학우분들의 지치고 힘든 학교생활에 활력과 즐거움을 드리는 이벤트와 행사를 계획하여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한 단체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국을 통해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힐링이 되도록 계획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코로나-19로 인해 학우분들이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못 즐기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회는 학우분들에게 복지 및 즐거움을 제공해 드리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부족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열심히 노력하여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과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하는 이벤트 등의 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국장

학우분들의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드림 기획정책국장 경찰행정학과 18학번 이현진입니다.

기획정책국은 무슨 일을 하나요?

저희는 총학생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기획을 책임지며, 학우분들의 문화생활은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를 추진하고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항상 보다 나은 사업 진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보완하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총학생회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생활에서의 추억은 학교 사업 기획 및 정책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정책국장으로써 책임감을 가져 학우분들의 알차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로지 학우분들을 위한 기획과 정책을 꾸려 학우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한 표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학생과 학교가 하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홍보국장

학생들의 알 권리를 책임지는 홍보국장 항공서비스학과 19학번 이가은입니다.

홍보국은 무슨 일을 하나요?

홍보국은 타 부서의 정책과 이벤트를 학생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학사일정, 공지사항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우분들이 공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이벤트, 학교정보 등 자신이 혜택받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기회를 놓친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학우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학우분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놓치지 않고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소중한 의견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톡 등 다양한 SNS에 여러분들과 저희의 편리하고 원활한 소통 창구를 개방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Follow me

숨은 스팟 및 편의시설 소개 1탄

나만 따라와! 중원대학교를 안내할게





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학우들! 벌써 2021년 신축년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20학번 학우들도, 신입생인 21학번 친구들도 학교가 낯설게 느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JR이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딱! 캐치하여 이번에는 중원대학교의 숨은 명소와 기타 편의시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 21학번 친구들! 나만 따라와! 윤지현기자 apashf01@naver.com

산책로



우리 학교의 자랑 중 하나는 바로 잘 가꾸어진 산책로입니다. 많은 학생이 산책할 때는 운동장만 뱅글뱅글 도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운동장 뒤편에는 조용하고 깨끗한 산책로가 마련되어있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 친구들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최고인 장소입니다. 산책로 중간중간 정자도 배치되어 있어 편하게 쉬다 갈 수도 있답니다!

건강관리센터



학우들! 다쳤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은 어디인가요? 바로 건강관리센터죠! 건강관리센터야말로 중원대학교 학우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곳이죠! 건강관리센터는 남자기숙사 주차장 근처에 매점 가는 길 바로 뒤편에 있답니다.

농구장





생활관 주차장으로 가는 길 옆 오르막길로 올라가면 농구장이 있답니다! 체육대회가 시작되면 피구경기가 열리는 곳이기도 해요! 중원대학교 학우들도 친구들과 함께 농구나 피구를 즐기면서 답답한 기숙사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어떨까요?

박물관 & 식물관





우리 학교의 숨은 포토존은 바로 식물관인데요! 식물관과 박물관은 우리 중원대학교 비행기 모형 왼쪽 옆에 있답니다. 식물관에서 거울 샷으로 사진 한 장 찍으면 그 사진이 바로 인생샷!

잉글리쉬 카페



팀 과제나 동아리회의 등이 코로나19 전에는 잉글리쉬 카페에서 많이들 하곤 했었는데요. 잉글리쉬 카페는 애니카피센터 바로 위층에 있답니다! 아카데미동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거에요! 카페 안에는 젠가, 카드게임, 체스 등 다양한 보드게임이 배치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음료를 따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 컵에서 따라 마시고 세척한 뒤 정리 후 나오면 된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가 끝나면 잉글리쉬 카페에서 젠가 한 판 어떠세요?

스포츠센터



우리 학교는 카페테리아 입구에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 '스포츠센터' 라는 곳이 있어요! 안에는 헬스장, 씨름장, 스크린골프장이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항공대학 실습실이 있답니다! 많은 학우들이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데요, 21학번 학우들도 헬스로 건강을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강당



10층에서 내린 뒤 계단을 올라가면 커다란 강당이 있어요! 우리학교는 강의나 취업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때에 대강당에서 한답니다! 게다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마다 비교과 시간도 주니 완전 꿀팁이죠! 새내기 친구들은 대강당이 어디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 이번에 기억해보아요!

운동장 스탠드





본관 1동 건물 앞에는 아주 멋진 풍경을 가진 스탠드가 있어요! 스탠드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면서 먹는 커피는 아주 기가 막히죠! 꼭 코로나19가 끝나고 학교에 오게되면 커피를 들고 꼭 가보세요!

샤워장





중원대학교에는 넓은 샤워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남자기숙사 (전 여자기숙사) 1층 왼쪽에 있답니다! 기숙사에서는 목욕을 즐기기 어려우니, 가끔씩 샤워장에서 따끈따끈한 물에 들어가 힐링 하는 것은 어떨까요?

매점 가는 다양한 길





20학번 친구들! 설마 매점 갈 때 마다 카페테리아를 통해 가나요? 그렇다면 주목! 사실 매점에 갈 수 있는 길은 다양하답니다! 20, 21학번 학우들이 눈치 못 챈 학생회관을 이용하여 가는 길을 소개할게요! 본관에서 매점까지 바로 갈 수 있어 편리하답니다!

장학금 어디까지 알고 있니?



대학생활 하면 빠질 수 없는 위시리스트 중 하나는 아무래도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생활 하기!! 모두들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죠? 그렇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도 닿을락 말락 하는 과탑! 대신에 저희 JR이 다른 장학금도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장학금



우리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공인 어학 성적(TOEIC, TOFLE 등)을 많이 준비합니다. 우리 학교는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부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독려 하고자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대표적 공인 영어 성적인 TOEIC과 TOFLE, 중국어 시험인 HSK, 일본어 시험인 JLPT 이렇게 총 4개의 공인 어학 성적에 관하여 장학금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700,000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재학기간 중 1회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해외 교류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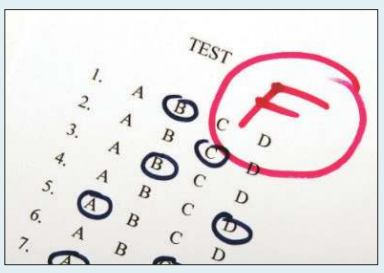
우리 학교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내 타 대학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국가의 대학 들과 교류를 맺고 있는 상태 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미국, 중국, 영국, 호주, 러시아, 인도 등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대학과 협약을 맺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렇게 협약을 맺은 학교의 교환학생으로 선발이 된다면 장학금을 지원해주는데 유럽, 북아메리카, 호주 지역은 1,500,000원을, 그 외 지역은 1,300,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외 해외교류 프로그램(해외봉사단, 해외 인턴십 등)에 선발이 될 시에도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함께 확인하고 지원해보시기를 추천 드릴께요! 글로벌 스펙을 쌓으면서 장학혜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해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학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해 보세요!

편입생 추천 장학금



요즘 어플이나 게임을 하다 보면 추천인 제도라는 것을 심심찮게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학교도 이러한 추천인 제도를 통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편입생 추천 장학 제도입니다. 이 장학금은 말 그대로 편입을 하려는 친구에게 우리 학교를 소개시켜주고 그 학생이 우리 학교로 편입을 할 시에 추천을 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편입생을 위한 장학금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 우리 학교를 친구에게 소개시켜주고 친구와 함께 캠퍼스 라이프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편입생 추천 장학금은 횟수 제한은 없으며 편입생 1인당 수업료 50만원 감면이 되니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편입을 고려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장학금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성적 향상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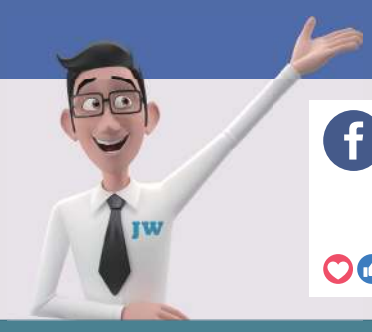
설레는 학교 생활을 하고 20살의 젊음을 즐기다 보면 학점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성적과 거리 두기를 실천하다 보면 어느 샌가 성적표에 학사 경고가 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를 주기 위해 우리 학교는 장학금 제도에 성적 향상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장학금은 직전학기 학사경고자가 현재 학기 평균 성적이 3.0 이상이 된다면 장학금 300,000원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놀기만 하다가 정신차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는 학생들에겐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만한 제도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것까지 장학금을 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아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학교 활동을 통한 장학금





이 장학금 제도는 보람찬 학교 생활과 활발한 대외 활동을 원하는 책임감 있는 학생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장학금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안에는 학교를 위해 열심히 뛰고 활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회, 생활관 학생 운영위원회, 총동아리연합회, 홍보대사 그리고 저희 언론장학기자 JR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노고를 인정해주어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학생회의 경우 총 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총 학생회의 회장, 부회장 그리고 학생회 내의 부서를 맡고 있는 국장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단과대학 학생회의 회장과 부회장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학생회 부원들에게는 장학금은 지급 해주지 않지만 훗날 학생회를 이끌어 나가고 싶다면 학생회 부원으로 경험을 쌓으며 고학년에 학생회 임원으로 후보등록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생활관 학생 운영위원회의 경우는 회장, 부회장, 부장까지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총동아리 연합회는 회장과 부회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홍보대사 가람과 언론장학기자단 JR은 선발된 모든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50%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모집기간 또는 후보등록 기간을 잘 확인하고 지원하길 바라겠습니다!



중원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Jungwonuniv/

중원언론장학기자 페이스북페이지
https://www.facebook.com/Jwujr

중원대학교

Jungwonuiv
Monday at 11:00 AM

중원대학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누르고 학교 소식을 받아봐!

Lorem ipsum and 291 others

55 comments

내가 치매라구~?

디지털 치매 진단법



중원인 여러분은 자신의 물건을 놓고 잃어버려 다시 찾으려고 노력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알고 있던 전화번호나 대화를 하다가 특정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당황스러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건망증 같은 증상을 디지털 치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임현준 명예기자 lhj960918@naver.com

디지털 치매 예방법

1.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제한하기

핸드폰은 우리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하는 습관은 깊은 잠을 방해한답니다. 수면시간이 줄어들면 기억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충분한 잠을 자야 뇌가 뉴런의 연결을 강화시켜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 전 2시간은 아날로그에 투자해보면 어떨까요?

2. 좌뇌 우뇌 골고루 사용하기

직업이나 성격에 따라서 좌뇌와 우뇌 중 한쪽에 더 치우쳐 사용하게 됩니다. 평소에 퍼즐, 낱말 맞추기, 간단한 게임 등으로 좌뇌와 우뇌를 균형 있게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또한 손끝의 자극이 뇌를 활발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손 글씨로 시험공부를 하면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3.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기

하루 30분씩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기억과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낮 동안 햇볕을 쐬면서 걸으면 세로토닌 분비량을 늘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4. 좋아하는 노래 가사 외우기

기억력 향상을 위해 영어나 한자 단어, 사자성어, 좋아하는 노래 가사나 시 외우기 등의 암기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또 시공간 능력 향상을 목표로 종이 퍼즐, 칠교놀이, 블록 게임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밖에 스도쿠는 다양한 난이도의 책이 출판되고 있어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혼자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디지털 치매 자가진단법

- 내 번호와 집 번호 말고는 못 외운다.
- 메신저나 이메일 대화가 80%를 차지한다.
- 전날 먹은 메뉴가 기억나지 않는다.
- 손글씨를 거의 쓰지 않는다.
- 전에 본 사람을 못 알아본 적이 있다.
-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지적을 받아봤다.
-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단 뒤 지도를 안 본다.
- 집 전화번호가 갑자기 안 떠오른다.
- 아는 한자나 영어단어가 기억나지 않는다.
- 가사를 보지 않으면 애창곡도 못 부른다.

※ 3가지가 넘으면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



임상병리학과
18학번 이세은

"저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경험하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자주 까먹는 것 같습니다. 매일 교수님께 가서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해요. 그리고 이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집 주소를 잘 못 외우고 있습니다. 항상 쓸 때 핸드폰을 보고 쓰네요"



항공기계공학과
19학번 정진우

저는 디지털 치매 자가진단에서 2가지가 적용되는데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것은 뭔가 하려고 스마트폰을 들었는데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날 때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듣는 중에 익숙한 노래인데도 노래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항공재료공학과
16학번 유승영

어릴때는 친구들과 약속 잡으려고 전화를 하려면 친구들 번호는 기본으로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고선 제일 친한 친구의 번호도 못 외우고, 외우더라도 쉽게 까먹어요. 길을 잘 외워서 찾아갔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지도 어플만 바라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퀴즈 이벤트

학보를 꼼꼼히 읽고 아래 퀴즈의 빈칸을
채워 재출 하시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

기간 : 03.02 ~ 03.31 까지

1. 학생들의 취/ 창업 관련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곳의 장소이름을 찾아 보세요. (　　)
2. 최두환 중원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찾아 초성을 채워보세요.
   ㅅㅅㅅㅂ하며,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 (　　)
3. JR의권장 도서 중 "나는 ㄱㅎㅅ, ㅅㄹㅇㄴㄷ" 라는 책의 초성을 찾아 보세요. (　　)
4. 학생들이 이용 할 수 있는 헬스장, 씨름장, 스크린골프장 이 위치한 이곳의 이름은 맞춰보세요. (　　)
5. 졸업생 인터뷰 "중원대학교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에서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중 아래의 초성을 보고 채워보세요
   목표도 ㅁㄷㅁ ㅇㄹㄱ ㅇㅎ ㄴㄹㅎㄴ (　　)
6. 일본에서 석·박사 학위과정을 마치시고 벤쿠버에서 연구원 근무를 2년 가량 근무를 하시고,
   현재 중원대학교 의생명과학과 교수직을 맡고 계시며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의 성함을 찾아주세요
   (　　) 교수님
7. 우리 중원대학교는 기부자님들이 주신 기금으로 학교 전략 사업에 소중히 사용 중인 이 기금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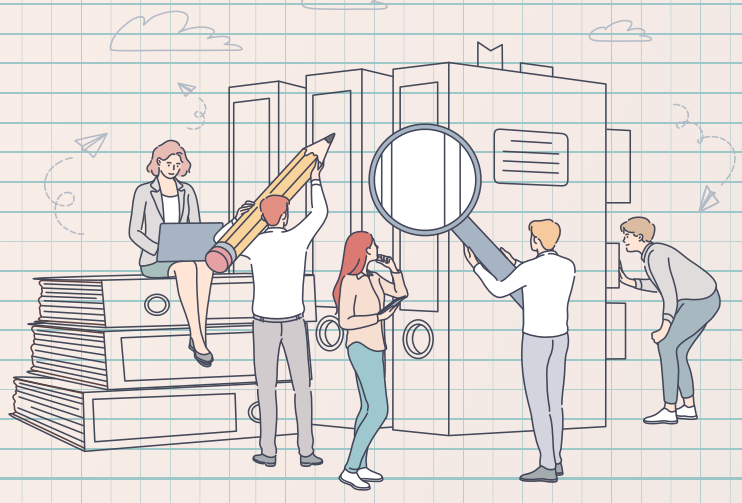
정답을 채운뒤 페이스북 중원대학교 학생기자단 JR-Jungwon Reporters 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제25호 2021년 03월 02일 화요일

JR 권장 도서

언론장학기자단이 추천하는 인생 책!



독서는 창의력과 어휘력, 집중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정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다면 중원대학교 언론장학기자단이 선정한 'JR 권장 도서'를 도전해 볼까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느낀 생생한 후기를 살펴보고, 한 권을 PICK해 보세요!

변다원 기자 qqw0124@naver.com





항공기계공학과
20학번 김현우

제가 추천하는 도서는 바로 앤디 위어의 '마션'입니다.

저는 인터스텔라를 5번 넘게 봤을 정도로 사실적인 SF 과학의 장르를 다루고 있는 영화를 매우 좋아합니다. 수많은 SF 과학 영화보다 더욱 현실성 있게 제작된 영화 '마션'을 보고 난 뒤, 원작이 소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앤디 위어의 원작 도서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먼저 관람한 저로서는 책을 읽는 동안 영화의 장면을 계속 상상하면서 책의 내용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고, 영화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소설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구성되어 있어 읽는 재미가 정말 컸습니다.

'마션'은 팀원들과 화성 탐사를 가다 폭풍으로 인해 급하게 실험을 철수하고 지구로 복귀하려는 도중, 주인공 마크와트니가 날라 온 파편을 맞고 폭풍 속으로 사라지는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대원들은 지구로 복귀하는 도중, 마크와트니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마크와트니 구조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극적이며 반전적인 요소가 많아 몰입도가 굉장히 높기에, 꼭 한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기계공학과
16학번 최영민

제가 추천하는 책 '모멘트'는 미국인 작가인 토마스가 서독에서 동독으로 망명한 페트라와 만나 사랑에 빠지는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여자 주인공인 페트라는 동독에서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동독 경찰에 잡혀갔고, 그녀 또한 경찰에 붙잡혔다가 아들을 두고 서독으로 도망쳤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그녀와 그녀의 과거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러던 와중 토마스는 페트라는 사실 동독의 요원의 끄나풀이었고, 본인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에 휩싸여 결국 그녀를 쫓아냅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의 일기를 통해 동독 경찰이 그녀의 아들을 볼모로 잡고 협박을 가해 어쩔 수 없이 협조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지만, 이미 그녀는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후회하며 막을 내리는 아쉽고도 슬픈 책이랍니다.

작가인 더글라스 케네디가 사용한 문체나 표현은 굉장히 흡입력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끝까지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인 사랑, 배신감, 후회, 애틋함 등을 주인공인 토마스를 통해 녹여냈기에 여운 또한 많은 작품입니다.

동독과 서독의 분단 시기를 담고 있는 시대적 배경의 특성상 흥미를 더하기도 하고, 현재 분단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의 공통점도 느낄 수 있죠. 이 소설이 희극으로 끝난다면 시사하는 바가 적었겠지만, 소설이 비극으로 치닫기에 우리의 일상에 접목하여 주인공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교훈적으로 삼아도 좋을 듯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라 말하지만, 지금의 나를 만든 건 선택하고 행했던 과거의 나다. 결국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안개 속에 있다. 우리는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옳길 바라는 선택을 할 뿐이다.'라는 구절을 좋아합니다. 이 구절은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갇혀있는 청춘들에게도 접목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만 바라보다간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수 없으니, 현재에 집중하고 충실해야만 할 테니까요.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 순간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니, 그 선택에 충실히 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알게 되기도 한답니다.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모멘트'라는 책을 읽고 현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정표현을 가감 없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호학과
19학번 변다원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라는 책의 저자인 김현아 간호사는 외과중환자실에서 일하며 21년 2개월 동안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2011년부터 칼럼을 연재하면서 병원 생활을 많은 독자와 나누려고 했던 그녀는, 메르스 사태 당시 '간호사의 편지'로 전국을 감동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책 제목을 보고 '간호사를 꿈꾸는 사람들한테나 재밌는 책 아니야?'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책은 메르스 사태에서 무섭고 불안했던 당시의 상황과 김현아 간호사가 지켜본 중환자실 환자들의 이야기가 주로 담겨 있기에, 현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사람 누구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일화 중, 두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고 응급실로 내원한 여자아이는 결국 다리가 썩어 절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술을 마신 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였고, 헤어지자고 통보받은 남자친구는 한밤중에 그녀가 덮고 있던 이불 위로 불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고, 재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아이는 의족에 완벽히 적응한, 여전히 구김살이 없는 평범한 여자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내가 화상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족으로라도 걷고 싶다며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라고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외에도 삶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다양한 일화가 소개되는데요. 평소 술을 좋아하지 않던 남성은 딱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팔다리와 호흡근이 모두 마비되었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는 출근길 버스 바퀴 아래에 깔려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삶은 지뢰밭을 걷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누구는 걷는 동안 한 번도 밟지 않는 행운을 누리기도 하지만 누구는 너무 일찍 밟아 가려던 걸음을 그 자리에 멈춰야 합니다. 그렇기에 중원대학교 학우분들께서도 이 책을 통해 불공평하면서 공평한 삶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항공서비스학과
19학번 윤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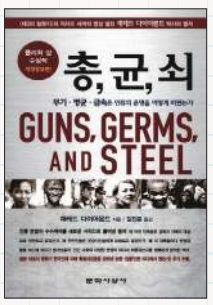
저는 연인, 인간관계, 자존감, 인생 등 모든 것에 지친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무책임한 충고를 하는 대신, 여러 가지 고민할 법한 주제들을 가지고 타협할 수 있는 선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줍니다. 지친 당신에게 '너무 힘들면 놓으면 되잖아.'라는 무책임한 말이 아닌, 공감과 위로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따라서 저는 이 책을 통해 학우분들의 머릿속에 맴도는 복잡한 생각들을 멈추거나,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해결되어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책 속에서 ''힘내.'라는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는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내'라는 말은 '뛸 힘이 없어도 뛰어야 한다.'라는 무언의 압박감을 주는 단어이므로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조언을 해주는 것도 자유지만, 그 말대로 움직이는 것도 스스로가 정하는 마음이니까요!

저는 수술 후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이 책을 접했는데요, 당시에 잠시 쉴 틈도 없이 토익, 각종 자격증 등 스펙업에 몰두하고 있었던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바닥난 감정 에너지를 채워줌과 동시에 재정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불안감에 쫓겨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간호학과
20학번 최지원

'총,균,쇠'는 진화생물학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총기와 병균, 그리고 금속이 역사에 미친 엄청난 영향을 분석한 책입니다. 수렵과 채집단계를 넘어서 농경을 하게 된 사회는 문자와 기술, 정부, 제도뿐 아니라 병원균과 강력한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고, 질병과 무기의 도움으로 다른 민족들을 희생시키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했으며, 지난 500년간 유럽인이 자행한 비유럽인 정복의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저는 "역사 진행의 차이는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라는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인간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운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은 혼자서 해결하고 폐쇄된 상황을 가지는 것보다 열린 마음과 사고로 무지를 인정하고, 함께 해결하면서 공유할 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책 한 권 속에 전쟁, 환경, 인종 차별 등 다양한 세계의 과제들을 담고 있어서 저 스스로 사고가 넓어지고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게 하는 책인 것 같아 흥미로웠습니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총, 균, 쇠, 그 중에서도 총과 쇠보다 강했던 균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온 만큼 이 시기에 이 책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책은 인류의 문명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낸 명저로 다들 한 번쯤 책 제목을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 지리학, 생태학. 유전학, 병리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 자신의 사고와 지식 함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에 이 책을 추천합니다!





항공재료공학과
16학번 이현복

저는 손원평 作 '아몬드'라는 도서를 추천합니다. 이 책은 희귀병으로 인해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윤재'라는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년에게 마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벌이라도 주는 것처럼 많은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곤이'라는 존재가 나타남으로써 윤재의 하루하루는 요동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 나는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 하나. 그럼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런 질문을 받아보는 게 처음이었다.' 저에게 가장 강렬하게 다가온 구절이에요. 남들과 다른 윤재를, 곤이는 편견을 가지지 않고 평범한 사람에게 질문하듯이 질문해요. 하지만 윤재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받아 본 적 없는 질문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그동안 곤이와 같은 사람이었을지 아니면 윤재에게 그런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무심한 사람 중 한 명이었을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통해 저와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저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슬픈 감정을 표출하지 못한다 해서 그 사람이 아픈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또 윤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느껴질까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윤재를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까지 이끌며 함께 손잡아 주는 사람일지, 어두운 곳에 갇혀 있는 윤재를 바라보기만 하거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는 사람일지, 고민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서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어요.

이 책의 두 주인공과 저는 닮은 점이 없지만, 이상하게 몰입이 가고 공감이 가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마치 책의 색이 바뀌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책을 읽기 시작할 때는 차가운 파란색이었다면, 곤이를 만나고 점점 따뜻한 빨간색으로 변해가는 느낌이었죠. 책을 자주 읽지 않는 편인 저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청 빠르게 읽은 책이에요. 바쁘게 살아온 날에 상처받고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권유해주고 싶어요!

Microsoft Office 365 무료 사용법



대학교 공부 또는 발표 과제 목적으로 새 데스크톱 컴퓨터나 노트북을 구매하신 학생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과제 할 때 필요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구입처에서 따로 깔아주지는 않죠! 직접 구입하자니 금전적인 부담도 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체험판이 아닌 정품을 학교 메일 주소만 가지고 무료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혹시나 발급받은 학교 이메일이 없더라도 학과 사무실 또는 학사운영팀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Microsoft Office 365 무료 사용법

1. 중원대 포탈 (http://portal.jwu.ac.kr)에 방문하여 오피스 배너를 클릭합니다.
2. 이동한 페이지에서 로그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하기 클릭 시 가입페이지로 이동하며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정보 입력 후 가입을 완료합니다.
5. Office 365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가입 시 등록한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합니다.
6. 로그인 후 사용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함께 중원대학교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중원대학교는 기부자님들이 주신 기금으로 학교 전략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에 감사드리며 중원대학교의 밝은 미래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발전기금이란?

중원대학교 발전기금은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기업 및 외부인이 중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교육기자재, 비품, 현물 등의 유형자산으로 출연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발전기금의 용도

중원대 발전기금 (용도 미지정)	기부자가 직접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해당 기간에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나 교육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기금
시설기금	학교건물, 시설 증축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금
교육기금	우수 교원의 충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기금
장학기금	장학금 수혜율 확대 및 국내외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기금
연구기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기금

세제혜택

대학교에 기부하시면 법정기부금으로 관련법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및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기부	소득세법에 의해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개인 연말정산 또는 세무 신고시 연간소득의 100% 법위 내에서 소득공제 됩니다.
법인 기부	법인은 연간소득의 50% 법위 내에서 소득공세 또는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상속재산 기부	기부금 전액에 대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부방법 안내

1 약정서 출력작성 (중원대학교 홈페이지 참고) ▶ 2 메일 또는 팩스 제출 (메일 : reduy@jwu.ac.kr / 팩스 : 043-830-8079) ▶ 3 기부금납부

납부방법

방문납부	본교 본관 3층 홍보팀 (M1 309호), 043)830-8071
무통장납부	국민은행 615801-04-211393(중원대학교 발전기금) 국민은행 615801-04-207855(중원대학교 장학기금)
분할납부	기부자가 매월 약정한 날짜에 중원대학교 발전기금 통장으로 분할 납부(자동이체)

납부문의

전 화	043-830-8071
팩 스	043-830-8079
이메일	redguy@jwu.ac.kr
주 소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홍보팀 (M1 309호)

중원대 기부자예우프로그램 (2021.03.01.현재 기준, 추후 업데이트 예정)

예우 / 기부액	JWU Sponsor		JWU Honor			JWU Gold Honor	
	1백만 이상	5백만 이상	1천만 이상	2천만 이상	5천만 이상	1억 이상	10억 이상
감사 서신, 기부영수증 발급, 학교 학보 발송	○	○	○	○	○	○	○
골프실습장 이용권 증정	5매	25매	50매	1년 무료	3년 무료	평생 무료	평생 무료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본인)	1년 30%	1년 50%	1년 무료	2년 무료	5년 무료	평생 무료	평생 무료
회의실, 강당, 운동장 등 학교시설 무료 이용		1년	2년	3년	5년	평생	평생
학교 다이어리, 달력 발송, 학교 기념품 증정(1회)		○	○	○	○	○	○
도서관 이용 ID 발급(본인)			○	○	○	○	○
박물관 무료관람(본인)			1년	2년	3년	평생	평생
감사패(장) 증정(총장명의)			○	○	○	○	○
학교행사 VIP초청, 총장 초청 만찬					○	○	○
특정실 명칭 부여							○

* 기관 및 단체의 경우 대표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상위 기부금액의 예우 내용을 하위 기부금액의 예우내용을 포함
* 상기 예우프로그램은 대학의 사정 및 본인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타 대학 사례와 우리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예우 범위를 설정
* 학교 시설 무료 이용의 경우 해당 관리부서의 사용기준(사용비용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 추후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거쳐 수정, 보완, 변동 가능